

오랜 기다림 끝에 꽃 피운 '스포츠DNA'

아버지 카누·어머니 창던지기 국가대표 출신 슬럼프 이겨내고 여유...2년만에 세번째 우승

양희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타일랜드(총상금 160만 달러)에서 2년 만에 통산 3승째를 따냈다.

26일 태국 파타야의 시암골프장(727)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한국선수들끼리의 우승 경쟁이 예고됐다. 5타 차 선두로 나선 양희영 뒤로 유소연(27)과 김세영(24)이 우승을 다했다.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양희영은 이날만 4언더파 68타를 치면서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우승했고 유소연(17언더파 271타)과 김세영(15언더파 273타)이 2위와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5년 이 대회에서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양희영은 약 2년 만에 같은 대회에서 3승째를 신고했다. 22언더파는 이 대회 최저타 신기록(종전 21언더파)이다.

양희영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보여 온 유망주다. 골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다. 타고난 스포츠DNA 덕분에 재능도 있었다. 양희영의 아버지 양준모 씨는 국가대표 카누 선수 출신, 어머니 장성희 씨는 창던지기 선수로 1986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운동신경에 근성까지 남달랐다.

호주로 골프유학을 떠난 이후 꽃을 피웠다. 2006년 만 16세의 나이로 유럽여자프로골프(LLET) 투어 ANZ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이 대회에서 아마추어가 우승한 건 카리 웹(호주) 이후 22년 만이었다.

2007년 12월 미 LPGA 투어 켈리파인스쿨에 도전하면서 프로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2007년 켈리파인스쿨에서 공동 54위에 그치면서 조건부 시드를 받는 데 그쳤다. 2008년부터 정상적인 투어활동을 했다. 그러나 우승은 쉽게 오지 않았다. 2012년까지 준우승만 4번했다.

5년의 기다림 끝에 첫 우승을 맞았다. 2013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서희경(31)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다렸던



양희영이 26일 태국 시암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타일랜드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이 대회에서 통산 2승째를 신고했던 양희영은 2년 만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3승째를 달성했다. AP뉴시스

LPGA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데뷔 이후 무려 119경기 만에 이뤄낸 값진 우승이었다.

우승 이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2014년 갑자기 부진에 빠지면서 방황했다. 골프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슬럼프를 겪었다. 잠시 골프를 내려놓고 필드를 떠나있었다. 그러자 골

프가 새롭게 다가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골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태국에서 열린 혼다타일랜드에서 17개월 만에 2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3번째 우승까지는 또 긴 기다림이 있었다. 하

지만 예년과 달랐다. 골프를 즐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자넨 리우올림픽에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기쁨도 맛봤다. 마지막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환하게 웃는 양희영에게서 승자의 여유로움이 보였다.
주요명 기자 na1872@donga.com

꾸준히 강한 유소연 56경기 연속 컷통과



유소연(27)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다.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하며 늘 정상에 있다.

유소연은 2008년 데뷔 이후 한반도 상금랭킹 10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선 2008년 상금랭킹 6위를 시작으로 2009년 2위, 2010년 4위, 2011년 3위를 기록하는 등 4년간 8승(2015년 1승 포함 통산 9승)을 수확했다. 2012년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다. 2011년 비희원으로 US여자오픈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뒤 직행타켓을 따냈다. 그리고 2012년 데뷔 첫 해 상금랭킹 6위, 2013년 5위, 2014년 5위, 2015년 8위, 2016년 10위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유소연의 꾸준함은 3가지 기록이 더 증명한다. 첫 번째는 연속 컷 통과다. 2014년 9월 에비앙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실수로 변형된 퍼터를 사용했다가 실격 당한 이후 레인우드클래스부터 현재까지 56경기 연속 컷 통과에 성공했다. 현재 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선수 중에선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이다. 역대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폴라 크리머(미국의) 82경기(2010~2014년)다.

두 번째는 10위 이내로 경기를 끝낸 '톱10 피니시'다. LPGA 진출 이후 2012년 7경기에 이어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는 10경기씩 '톱10' 이내의 성적을 냈다. LPGA 투어에서도 이 정도 꾸준함을 보여주는 선수는 드물다.

세 번째는 평균타수다. 2012년 70.30타로 2위에 오른 이후 2013년 70.29타(4위), 2014년 69.98타(4위), 2015년 70.32타(7위), 2016년 70.07타(6위)를 기록 중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승이다. 2012년 LPGA 진출 이후 우승은 2번(통산 3승)에 머물러 있다. 가장 최근 우승은 2014년 8월 캐나다 여자오픈이다. 유소연은 26일 태국 파타야의 시암골프장에서 끝난 LPGA 투어 2017시즌 3번째 대회 혼다타일랜드에서 준우승했다. 우승 짐목을 깨진 못했지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56경기로 늘리면서 또 한번 유소연의 힘을 보여줬다.
편집 | 권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WBC 대표팀 평가전

●쿠바-한국 (25일) 1차전 (한국 1승)

고척	한국	0	0	0	0	0	1	0	0	0	0	1
고척	쿠바	1	2	1	0	1	1	0	0	X	6	

●쿠바-한국 (26일) 2차전 (한국 2승)

고척	한국	0	0	0	0	1	0	6	0	0	7
고척	쿠바	0	0	2	0	0	1	1	0	2	6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32	30	2	0.938	0	6승
2	삼성생명	33	18	15	0.545	12.5	1패
3	KB스타즈	33	14	19	0.424	16.5	1승
4	KDB생명	32	12	20	0.375	18	3패
5	신한은행	33	12	21	0.364	18.5	1패
5	KEB하나	33	12	21	0.364	18.5	1패

●경기결과

26일	신한은행	59	33	15-22	34	67	KB스타즈	37	18-12
				14-11					18-12
				12-22					17-17

25일	KEB하나	61	34	20-13	33	69	우리은행	30	14-24
				10-15					17-19
				12-13					25-14

24일	신한은행	60	28	11-11	30	56	삼성생명	26	12-13
				20-13					26-14

프로배구 (26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2	23	9	67	2855	2680	1
2	현대캐피탈	32	20	12	59	2907	2799	2
3	한국전력	33	20	13	56	3126	3099	1
4	우리카드	32	16	16	51	2849	2794	1
5	삼성화재	33	16	17	51	2984	3010	1
6	KB손해보험	32	12	20	38	2789	2862	2
7	OK저축은행	32	6	26	17	2665	2931	1

●부문별 중간순위

순위	선수	팀	득점	세트당 블로킹
①	타이스	삼성화재	995	윤봉우 한국전력 0.60
②	파다르	우리카드	846	신영석 현대캐피탈 0.58
③	바르티	한국전력	815	이선규 KB손해보험 0.57
④	가스파리니	대한항공	748	최민호 현대캐피탈 0.55
⑤	우드리스	KB손해보험	747	박상하 우리카드 0.55

●경기결과

26일	한국전력	3	25-20	0	삼성화재	3	25-21
			25-22				18-17
			25-21				23-21

25일	대한항공	0	30-32	3	현대캐피탈	3	16-25
			16-25				18-25
			18-25				20-12

24일	삼성화재	3	25-18	0	KB손해보험	3	25-23
			25-23				26-24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26	18	8	53	2175	2078	1패
2	IBK기업은행	27	17	10	53	2310	2136	1승
3	KGC인삼공사	28	14	14	41	2284	2297	2승
4	현대건설	27	13	14	39	2339	2332	3패
5	GS칼텍스	27	10	17	31	2294	2375	1패
6	한국도농공사	27	9	18	26	2169	2356	4승

●경기결과

26일	흥국생명	2	25-22	3	인삼공사	3	25-22
			18-12				19-25
			19-25				13-15

25일	흥국생명	2	25-23	3	IBK기업은행	3	25-23
			17-19				7-15
			7-15				25-17

24일	인삼공사	3	25-17	1	GS칼텍스	1	25-14
			22-25				25-14

아마추어 경기결과 (26일)

●2017 K3리그 (각 홈팀구장)

●메이직=평창FC(1승) 4-0 서울유나이티드(1패), 평택시민(1무) 0-0 부여 FC(1무), 부산FC(1승) 1-0 서울중랑(1패), 시흥시민(1승) 2-0 FC정부(1패) ●현재 순위=① 평창FC(3점), ② 시흥시민(3점), ③ 부산FC(3점)

●2016-2017 FK리그 (황성국민체육센터)

●남자부=전주매그(13승1무2패) 9-4 드림하비(5승1무9패), 서울광진(7승2무7패) 12-5 인천FS(3승12패), 판타지아부천(11승3무2패) 3-2 원정FS(3승12패), FS서울(11승3무2패) 6-2 제천FS(8승7패) ●남자부 현재 순위=① 전주매그(40점), ② FS서울(36점), ③ 판타지아부천(36점)

●제 19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 (전남 광양) ●결승전=금호고 2(PK 4-2)2 통영고 ●제 49회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경남 양산) ●준결승전=정암고 1-0 과천고, 현대고 6-0 초지고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구 시민체육관)

●남자부=인천도시공사(4승1패) 26-19 충남체육회(2승3패) ●남자부 현재 순위=① 두산(8점), ② 인천도시공사(8점), ③ 충남체육회(4점) ●여자부=부산시실용고(4승2패) 37-28 광주도시공사(6패), 삼척시청(4승1무1패) 22-16 걸러물대구(3승1무2패) ●여자부 현재 순위=① 삼척시청(9점), ② 부산시실용고(8점), ③ 서울시청(8점)

경기 예고

프로농구 (27일)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구리시체육관)	우리은행
-------	----------	------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7일)

●농구 ●2016-2017 KBL D리그 2차(고양보호, 오후1시30분) ●SK-전자랜드

●테니스 ●2017년 여수오픈 테니스대회(여수 진남체육공원 테니스코트)

●검도 ●2017 SBS배 전국 검도왕 대회(잠실학생체육관, 오전9시)

오늘의 토토 (27일)

●농구도도 W매치 43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2.27 (월) 19:00	KDB생명 vs 우리은행	구리시체육관

●쿠바-한국 (26일) 2차전 (한국 2승)

고척	한국	0	0	0	0	1	0	6	0	0	7
고척	쿠바	0	0	2	0	0	1	1	0	2	6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32	30	2	0.938	0	6승
2	삼성생명	33	18	15	0.545	12.5	1패
3	KB스타즈	33	14	19	0.424	16.5	1승
4	KDB생명	32	12	20	0.375	18	3패
5	신한은행	33	12	21	0.364	18.5	1패
5	KEB하나	33	12	21	0.364	18.5	1패

●경기결과

26일	신한은행	59	33	15-22	34	67	KB스타즈	37	18-12
				14-11					18-12
				12-22					17-17

25일	KEB하나	61	34	20-13	33	69	우리은행	30	14-24
				10-15					17-19
				12-13					25-14

24일	신한은행	60	28	11-11	30	56	삼성생명	26	12-13
				20-13					26-14

프로배구 (26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2	23	9	67	2855	2680	1
2	현대캐피탈	32	20	12	59	2907	2799	2
3	한국전력	33	20	13	56	3126	3099	1
4	우리카드	32	16	16	51	2849	2794	1
5	삼성화재	33	16	17	51	2984	3010	1
6	KB손해보험	32	12	20	38	2789	2862	2
7	OK저축은행	32	6	26	17	2665	2931	1

●부문별 중간순위

순위	선수	팀	득점	세트당 블로킹
①	타이스	삼성화재	995	윤봉우 한국전력 0.60
②	파다르	우리카드	846	신영석 현대캐피탈 0.58
③	바르티	한국전력	815	이선규 KB손해보험 0.57
④	가스파리니	대한항공	748	최민호 현대캐피탈 0.55
⑤	우드리스	KB손해보험	747	박상하 우리카드 0.55

●경기결과

26일	한국전력	3	25-20	0	삼성화재	3	25-21
			25-22				18-17
			25-21				23-21

25일	대한항공	0	30-32	3	현대캐피탈	3	16-25
			16-25				18-25
			18-25				20-12

24일	삼성화재	3	25-18	0	KB손해보험	3	25-23
			25-23				26-24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26	18	8	53	2175	2078	1패
2								